빅히트 22% 폭락 '공모주의 저주' 고개?… 후발주자 어쩌나

〈공모가 대비〉

상장 11곳 평균 25% 상승 했지만
비비씨·박셀바이오 등 5곳 하락
5곳 중 4곳 공모가 밴드 최상단
기관 등 '단타' 주가하락 부추겨

지난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빅히트가 상장 이튿날인 16일 전일보다 22.29% 떨어진 20만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연합뉴스

〈지난달부터 상장한 11개 기업(스팩제외) 등락률〉 (단위 원, %)

구분	현재가	공모가	시초가	등락률	
				공모가比	시초가比
빅히트	20만500	13만5000	27만	48.52	-25.74
넥스틴	8만2000	7만5400	7만1100	8.75	15.33
원방테크	4만4250	5만4300	4만8900	-18.51	-9.50
비나텍	5만7400	3만3000	4만4000	73.94	30.45
박셀바이오	2만2550	3만	2만7000	-24.83	-16.48
비비씨	1만9950원	3만700	2만7650	-36.32	-27.84
핌스	1만5500	1만9000	2만1000	-18.42	-26.18
압타머사이언스	2만1400	2만5000	2만8850	-14.40	-25.82
이오플로우	4만7000	1만9000	2만1750	147.37	116.09
카카오게임즈	4만5850	2만4000	4만8000	91.04	-4.47
피엔케이 피부임상연구센타	2만1400	1만8300	2만8000	16.94	-23.57

카카오게임즈와 빅히트 등 증시 신규 상장기업의 과도한 주가 등락을 경험한 시장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신규 상장주 투자 전략이 진화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함께 걱정스러운 목소리도 들린다. 공모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상장 직후 주가가 급락하는 현상을 일컫는 '공모주의 저주'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는 것. 다른 신규 상장주의 초기 주가 흐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로 해석된다.

◆ 공모주의 저주… 높은 시초가 탓?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상장한 11개 기업(스팩 제외) 현주가의 공모가 대비 평균 상승률은 24.91%로 집계됐다. 수치만 놓고 보면 기업공개(IPO) 시장 인기에 힘입어 신규 상장주가 견조한 주가 흐름을 이어가는 것 같지만 절반 수준인 5곳이 현 주가가 공모가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만700원의 공모가를 받았던 비비씨는 전 거래일(16일) 1만9550원에 거래를 마치며 36.32%로 가장 많은 하락을 했다. 박셀바이오(-24.83%), 원방테크(-18.51%), 핌스(-18.42%), 압타머사이언스(-14.40%)가 뒤를 이었다.

공모주가 폭락할 수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한 것은 빅히트다. 시작까진 좋았다. 최종 공모가가 희망가 범위(밴드) 최상단인 13만5000원에 확정된 데 이어 증시에 데뷔하던 지난 15일 공모가 두 배인 27만원에 시초가가 확정됐다. 그러나 상장 첫날 4.4% 하락한 데 이어 전 거래일 22.29% 폭락했다.

최근 추락한 일부 공모주들은 공모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주가가 공모가를 밑도는 위 5개 기업 중 박셀바이오를 제외한 나머지 4곳이 최종 공모가가 밴드 최상단에서 결정됐다.

시초가 역시 높게 설정되며 밸류에이션(가치대비 주가수준) 논란과 직면해야 했다.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상장한 11곳 중 넥스틴, 비나텍, 이오플로우를 제외한 나머지 8곳 모두 현주가가 시초가를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공모 시장의 관심이 확대되면서 기관수요예측 경쟁률과 일반청약경쟁률 등으로 높은 시초가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직까진 주가가 공모가보다 48.5% 웃돌고 있지만 상장 후 2거래일 동안 25.75% 떨어진 빅히트도 다르지 않다. 시장가치(EV) 산정에 법인세·이자·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EBITDA)으로 나누는 방식(EV/EBITDA)을 사용할 때부터 "몸집 부풀리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주범은 기관·외인… 후발주자 "불안"

일부 상장주들이 '공모주 저주'에 걸린 주된 이유로 기관과 외국인의 단타가 지목된다. 빅히트의 경우 상장 첫날 1770억원을 순매도한 기타법인이 이튿날도 1321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외국인과 기관도 각각 238억원, 48억원을 순매도했다. 기타법인은 빅히트의 기존 주주인 메인스톤유한회사 등으로 추정된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확약 기간별 배정현황을 살펴야 하는 이유도 그래서다. 인기 공모주들의 상장 첫날부터 매도할 수 있는 기관 배정 물량 비중을 살펴보면 SK바이오팜이 47.75%, 카카오게임즈가 27.43%, 빅히트가 21.63%였다. 비중이 작을수록 시초가 형성 이후 유통물량의 수익 실현을 위해 곧바로 팔아치울 가능성이 크고 볼 수 있다.

증시 데뷔를 앞둔 후발주자들 사이에서는 위기감도 감지된다. 지나친 관심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반응이다. 실제로 빅히트 투자자들 사이서는 "긁어버린 복권이 공수표였다"는 조소가 들려온다.

IPO 일정을 앞두고 있는 한 예비 상장사 최고재무관리자(CFO)는 "시초가가 높게 책정되는 만큼 가급적 공모 첫날 매도를 원칙으로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다"며 "상장 초기 부진한 흐름으로 기업가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마음"이라고 했다.

반대로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쉽게 사서 상장 직후 곧바로 매도하는 '공모주 단타'를 넘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각을 넓힐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빅히트의 학습효과를 통해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높은 수익을 기대하는 투기성 짙은 투자에서 벗어나 밸류에이션을 중요한 요소로 여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수민 신영증권 연구원은 "뜨거웠던 몇 차례의 IPO 투자 경험을 통해 투자 전략 또한 진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자본을 확보하고 주주와의 투명한 소통을 바탕으로 향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IPO를 하는 이유"라며 "IPO 기업에 대한 중장기적인 투자 호흡을 탑재하는 전략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송태화 기자 alvin@metroseoul.co.kr

화이자 "내달 美서 코로나19 백신 긴급승인 신청"

"국산 치료제 연내, 백신 내년 목표"
셀트리온, 치료제 임상 2·3상 진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 기업인 경기도 성남 소재 SK바이오사이언스 방문, 세포배양실 등 연구시설을 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에서 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승인을 받을 것으로 알려지며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우리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와 제넥신 등이 개발 중인 국산 백신에 대한 허가가 내년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8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는 안전성 검증 자료를 확보하는 시점인 11월 셋째 주에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긴급사용 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앨버트 불라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사용 승인 신청 여부는 백신의 효과 등 몇 가지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면서 "현재 임상 속도로 볼 때 11월 셋째 주에는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자료가 준비되면 곧바로 사용 승인 신청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이자는 독일 바이오엔테크와 함께 코로나19 백신을 공동 개발하고 있다.

국산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역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부는 치료제는 올해 안으로, 백신은 2021년까지 개발을 완료해 자주권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국내 치료제는 연내, 국산 백신은 내년 허가를 목표로 매진하고 있다"며 "세계 최초는 아니더라도, 눈길 위에 처음 발자국을 찍듯이 한걸음, 한걸음 디뎌 연구개발, 임상시험, 산학연 협력 경험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셀트리온은 국내 코로나19 경증, 중증도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에 대한 임상 2·3상을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은 임상2상에서 효능 및 안전성을 호가인할 경우, 연내 긴급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GC녹십자는 지난 8월 혈장치료제 'GC5131A'에 대한 임상2상 승인을 받았다. 지난 14일에는 치료제에 대한 두 번째 배치 생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두번째 배치는 임상시험 목적으로 만든 첫 번째 배치와 달리, 의료현장에서 실제 확진자의 '치료 목적'용으로 사용된다.

국산 코로나19 백신은 이제 시작 단계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유전자 재조합을 통해 제조한 합성항원 백신에 대해 이달 초 식약처에 임상1상을 신청했다. 제넥신과 진원생명과학도 DNA 백신에 대한 임상을 진행 중이다.

권 본부장은 "코로나19 다음의 신종 감염병은 우리가 직접 연구개발한 치료제, 백신으로 국민을 우리 스스로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빅히트, 플레디스 인수 공정위, 기업결합 승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5일 빅히트엔터테인먼트(빅히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플레디스) 주식 취득 건에 대해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빅히트는 지난 5월20일과 6월9일 두 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의 발행 주식 85%를 취득하고 6월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었다. 빅히트의 주식 취득은 대규모회사 외의 자(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미만) 간의 기업결합으로, 기업결합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사후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빅히트는 세계적인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해 '투모로우바이투게더(TXT)', 계열회사 쏘스뮤직 소속의 '여자친구' 등의 가수를 소속 연예인으로 둔 연예기획사로 연예인의 기획 및 관리, 음원/음반 및 공연 기획과 제작, 영상 콘텐츠 제작, MD 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플레디스 역시 빅히트처럼 아이돌 가수를 전문으로 기획·관리하는 연예기획사로, 주요 소속 연예인으로는 '세븐틴', '뉴이스트(NU'EST)' 등이 있다.

공정위는 "두 회사가 상호 경쟁하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 및 '국내 대중음악(음원/음반) 기획 및 제작' 시장을 대상으로 이번 기업결합 경쟁제한 여부를 심사했다"며 "심사 결과 양 사간 결합으로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hys@

교육·행사 등 온라인 비대면 전환·운영

〉〉 1면 '뉴메트로 5주년'서 계속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재택근무는 변화를 주고 있지만, 유연근무제는 거리두기 단계 수준과 상관없이 유지된다. 재택근무의 경우 정부지침에 따라 거리두기 2단계 시 전 부서의 약 30%가, 2단계가 넘어가면 약 50%가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재택 근무 외에 교육이나 행사와 같은 대부분의 대면 집합 활동은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전환, 운영하고 있다. 부서별로 회의가 필요한 경우 화상회의 형식을 권장하고 있기도 하다.

일례로 본죽과 본도시락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는 매년 진행해 온 임직원 교육 프로그램(독서 모임, 명사 초청 강연) 오프라인 모임을 금지하는 대신 실시간 온라인으로 전환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회사의 제품은 소비자의 건강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코로나에 더욱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다"면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거리두기 1단계 2단계 차이가 거의 없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기업 관계자들은 코로나19가 기업문화를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입을 모은다. 국내 대기업의 50% 이상이 코로나19가 종식된 후에도 유연근무제를 지속, 확대할 전망이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근무 방식의 혁신을 꾀했다는 평가다. /신원선·조효정·원은미 기자 tree6834@